

전국 대학생이 만든 전기차 영광서 질주한다

군, 2~4일 ‘스마트 e-모빌리티대회’…1500여명 집결
가속·짐카나·주행성능·50랩 내구레이싱 기술력 승부



전국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기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을 질주한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6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에서 열린다. 광주특별시와 영광군,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 45개팀, 15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1인승 온로드 전기 경주차를 활용해 차량검사를 비롯해 가속, 짐카나, 주행성능, 내구레이싱 등에 참여한다. 제한된 기술조건 안에서 차량을 설계하고 부품을 선정해 뒤 제작과 시험주행을 반복하며 실제 자동차 개발 과정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회는 특히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차량 휠베이스는 기존 1250mm 이상에서 1500mm

이상으로 확대됐고, 타이어 기준도 125mm 이상에서 200mm 이상으로 강화됐다. 제동 등과 운전자 보호구조, 프레임, 범퍼 등의 기준도 보완됐으며 안전벨트는 기존 4점식에서 6점식으로 변경됐다.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도 강화됐다. 고전압과 저전압 전기시스템의 배치와 안전장치 기준을 적용해 차량 성능뿐 아니라 안전과 신뢰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했다. 경기 가운데는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해 코스를 주행하는 짐카나와 50랩을 달리는 내구레이싱이 주요 볼거리다. 짐카나는 가속성능뿐 아니라 조향과 제동, 코너링 등 종합적인 주행능력을 겨룬다. 내구레이싱은 장시간 주행을 통해 배터리와 전기시스템, 모터, 제동장치, 타이어 등 차량 각 부품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평가한다.

내구레이싱은 50랩을 가장 빠르게 주행한 팀에 만점을 주고 기록에 따라 차등 배점한다. 참가팀들은 최고속도뿐 아니라 차량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의 기술 경쟁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기계·전기·전자·제어·디자인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하나의 차량을 완성하고, 시험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찾아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영광군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분원 등 연구·시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e-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전국 대학생들이 영광의 연구·시험시설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전기차를 실제 시험환경에서 검증하고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라며 “대회를 통해 영광이 미래 e-모빌리티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이남오 함평군수 취임 100일 타운홀 미팅

참여 군민 50명 공개 모집…민선 9기 군정 방향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10월 14일에 군민과 함께 군정 방향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남오 군수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하는 ‘새롭게 100일, 이롭게 100인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군민 50명을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오는 14일 함평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내용으로는 민선 9기 100일간의 성과와 운영 방향 공유, 군민 자유토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군민이 현장에서 질문하면 군수가 직접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보충 설명을 더한다. 개별 민원이나 개별사업 건의보다는 군정 전반의 방향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할 군민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50명과 읍·면 추천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에는 군정에 관심 있는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집 분야는 교육, 농·축·수산, 보건·의료, 지역경제, 체육·관광, 복지, 기업 유치, 청년, 에너지·환경, 기타 등 10개로 구성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함평군청 누리집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안내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와 행사 안내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의 모집 안내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행정팀(061-320-1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군청에서 전남테크노파크와 ‘미래산업 육성 및 산업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

무안, 국제공항·국가산단 활용 미래 신산업 육성 ‘속도’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무안 거점센터 설치 등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군청에서 전남테크노파크와 ‘미래산업 육성 및 산업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안국제공항과 향후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신규사업 기획, 무안국제공항·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핵심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철도모빌리티,

AI·로봇, 반도체, 에너지, 농업AX 분야 육성 및 기업 유치, AI·로봇·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고도화와 기술의 현장 적용,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실증·전문인력 양성,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비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전남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산업지

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무안 거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또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컨설팅 확대와 우선 지원도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국제공항과 향후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 인프라에 전남테크노파크의 전문역량이 더해지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낭만·화합의 강진 ‘마량미향축제’ 5941명 발길

주민 주도 행사…가족 체험 등 새 매력 선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에서 열린 ‘제14회 마량미향축제’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마량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총 5941명이 방문했으며,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3197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올해 축제는 마량면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사 준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마련됐다. 만전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마량 풍물놀이패의 식전공연, 주민 참여 행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지역의 특색을 살렸다. 특히 마량면 12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한 옷놀이와 제기차기 대회는 마을별 경쟁과 응원이 어우러지며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었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운영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린이 친화형 축제’로 변모해 피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미술·비눗방울 공연,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어린이 맨손 활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 맨손 활어잡기 등 마량향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바다와 수산물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태욱 마량면 주민자치회장은 “교통 통폐합과 행사장 이용에 따른 불편에도 적극 협조해 준 주민들과 전곡에서 찾아준 방문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량미향이 맛과 멋을 품은 서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블랙이글스, 나주영산강축제서 ‘화려한 에어쇼’

11일 특별 프로그램…역동적 공중기동 등 연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026 나주영산강축제’ 마지막 날에 나주의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의 폐막일 특별 프로그램으로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선보인다.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블랙이글스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교한 편대비행과 고난도의 역동적인 공중기동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한 비행 기술과 팀워크를 국내외에 알리는 특수비행팀이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넓게 펼쳐진 영산강과 영산강정원 상공을 무대로 정밀한 편대비행과 박진감 넘치는 공중기동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블랙이글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술 콘서트와 어린이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디니핑킹 싱

어룡쇼’, 대형 로봇 캐릭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트랜스포머 공연’ 등이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저녁에는 폐막공연 ‘강변연가’가 영산강의 밤을 장식하며 10월 7일부터 이어진 5일간의 축제 일정을 마무리한다. 나주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원활한 교통관리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에어쇼 주요 관람 지역과 이동 동선에 안전요원과 교통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관람객이 한 곳에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인파 관리도 강화한다. 윤병태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영산강의 가을 하늘을 무대로 펼쳐지며 축제의 마지막 날을 더욱 특별하게 장식할 것이다”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주를 찾아 영산강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순간을 나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

